

최현석의《아름다운 우리 몸 사전》

오묘한 인체를 샅샅이 설명하다

글_ 권오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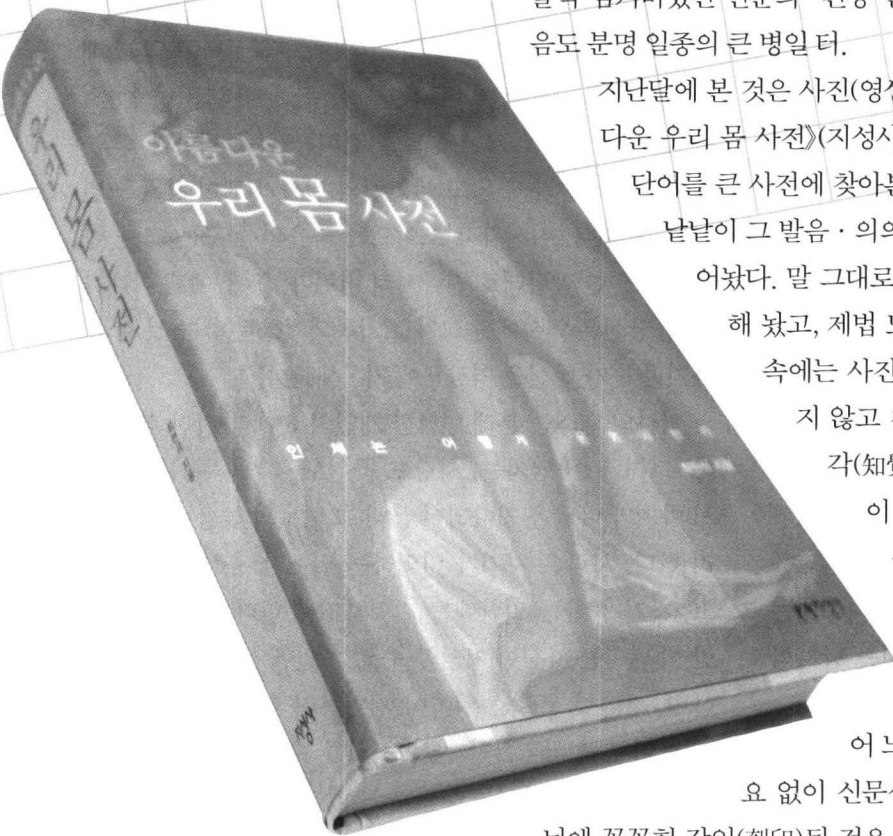
그렇다, 지난달에도 《인체》에 관해 글을 쓰지 않았던가.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는데... 사람 몸에 관한 책이 자꾸 눈에 띄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늙어가는 탓이 아닐까. 옛날에는 슬쩍 넘겨버렸던 신문의 '건강' 난이 눈에 쏘옥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하긴 늙음도 분명 일종의 큰 병일 터.

지난달에 본 것은 사진(영상)을 통해 본 인체라면 이번에 소개하는 《아름다운 우리 몸 사전》(지성사)은 글을 통해 읽는 인체다. '사전' (辭典)이란 단어를 큰 사전에 찾아본다. "언어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벌여 싣고 낱말이 그 발음·의의·용법·어원 등에 대하여 해설한 책"이라 풀어왔다. 말 그대로 이 책은 꽤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인체를 해설해 놨고, 제법 도톰한(596쪽) 것이 한 손에 딱 쥐일 정도다. 책 속에는 사진 그림이 없다시피 하지만 전연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책장이 넘어간다. 특히 나이 젊은 사람들은 지각(知覺)보다는 시각(視覺)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림과 사진을 많이 넣었으면 더 좋을 뻔 했다. 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져야 하기에 하는 말이다. 아무튼 책은 읽어 재미나는 '신문성 책', 들어 즐기는 '라디오성 책', 보고 들어 느끼는 'TV성 책' 등이 있다. 이 책은 두 말 할 필요 없이 신문성 책에 속한다. 눈으로 읽은 활자 하나하나가 뇌에 꼼꼼히 각인(刻印)된 것은 잘 잊혀 지지 않는다. "보고 듣고 느끼며 살지 말고 읽고 쓰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강단에서 목이 쉬도록 평생을 떠돌아왔다.

저자 최현석 씨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및 내과 전공의(專攻醫)와 전임의(專任醫)를 마치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교수, 삼성제일병원 내과과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현내과' 원장으로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내 몸의 생로병사》 등이 있다고 한다.

덕망(德望) 있는 최 원장께서 인체에 관한 글을 쓴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평생을 내과 의사로 지내면 배우고 가르치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왜 혼자만 차지해야 하겠는가. 더군다나 국립대학을 나온 우리들은 나라의 은덕을 더 많이 입었지 않았던가. 앎을 지갑이나 서랍에 넣어 둘 것이 아니라 내다 펼쳐야 한다. 그래서 잘 했다고 한 것이다.

사실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이 셋이 있다. 강의와 연구 말고도 '사회봉사' 라는 의무가 따른다. 자기가 전공한 것을 쉽게 풀이하여 여러 사람이 알게 책을 쓰는



《아름다운 우리 몸 사전》 최현석 지음 | 지성사 | 596쪽 | 값 28,000원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제42회 강원도 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는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육살이》 《얼룩어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것도 하나의 길이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글 솜씨, 즉 소질(素質)이 있어야 하는 것. 적성(適性)이 맞아야 한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글을 써도 남들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 하면 무용지물이다. 필자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원숭이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써야한다는 것! 그러나 그게 어디 또 그리 쉬운가. 그런데 이 책은 보통사람들이 읽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아주 쉽게 썼다.

'머리말'로 눈을 잠깐 옮겨본다. 그 전에, 머리말과 차례 앞에 '이은지에게' 이 책을 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부인이 아닐까 싶은데 맞는지 모르겠다. 필자도 책을 쓸 때마다 책 한 권에 의미를 달고 담았었다. 세상 떠난 형님을, 어머니를 기리기도 하였고 태어날 손자들의 건강도 빌었다. 바로 이런 점이 책 쓰는 재미가 아니겠는가. 저자는 서두에 "학문이 발전할수록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그만큼 더 모르는 과제가 쌓이게 된다. 인체탐구는 가도 가도 끝이 없기가 마치 우주 탐험과 같다"고 했고 "의학지식의 반감기는 흔히 5년이라고 한다. 이 책이 출판되고 오래가지 않아 금방 오래 전 이야기가 되어버릴 정도로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사실 필자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벌써 당달봉사가 됐고, 아니 확실히 벌써 죽었다. 눈알 두 개 모두가 백내장에 걸려 수술을 했으니 '개 눈'이 되었고(글 많이 쓴 탓에 생긴 병?), 쓸개까지 떼어버린 '쓸개 빠진 놈'이 되어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이미 여러 번 죽어야 할 사람이 버젓이 살아 있으니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알고 보면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다름 아닌 의학과 약학의 발달 덕이다. 나이든 남자치고 혈압 약, 혈당 약, 전립선 약 중 어느 하나를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약이 없었다면 벌써 저승으로 가야했다. 의·약학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

이 책을 읽으면 단순히 인체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감히 말한다. 책을 읽으면 본전을 언제나 뽑는 것이니까... 책은 크게 보아 12부로 나뉘져 있다. 신경계통, 감각기관, 오피계통, 호흡계통, 심장혈관계통, 혈액면역계통, 소화계통, 내분비계통, 생식기계통, 비뇨기계통, 근육골격계통들이다.

그리고 이 책 여기저기서 저자의 글재주(?)를 보고 느낀다. '의사가 쓴 글'이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뇌를 '호두껍질 속의 우주'라고 썼다. 얼마나 멋진지 제절로 탄성이 나온다! 호두를 먹을 때마다 녀석 대뇌를 어찌면 이렇게 닮았는가하고 느끼지 않았던가. 아주 재치가 있으면

서도 쉽게 글이 흐른다. 원어로 쓰고 싶은 충동을 참으면서(전문술어들은 책 뒤에 모아 붙여놨으니, 예로 고혈압을 hypertension이라 써둬) 쉬운 말을 찾아 써 내려가고 있다.

상식적인 의학지식도 빼놓지 않는다. 고추가 매운 것은 캡사이신(capsaicin)이란 화학물질 때문이다. 이것은 물에 작 녹지 않아 물을 마셔도 매움이 가시지 않는단다. 알코올이나 지방에 잘 녹기에 김에 식용유나 참기름을 묻혀서 혀에 대고 있거나 우유를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된단다. 이렇게 과학 상식을 얻는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하지 않는가! 어디 더 보자. 피 한 방울에 적혈구가 몇 개나 들었을까? 물경(놀라지 않을 수 없다!) 3억 개나 된다고 한다. 그 적혈구는 며칠을 살까? 약 120일이면 간이나 지라에서 파괴되고 새로운 적혈구가 그만큼 생겨난다. 4개월 동안 살아서 산소를 운반한 적혈구는 무려 144km를 오갔다는 통계자료도 제시하고 있다. 어디 하나 새롭고 신비롭지 않은 것이 없다.

"남성은 성교 후에 잠드는 경우가 많다. 과연 성교는 잠을 잘 오게 할까?... 극치감 이후에는 도파민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뇌에 증가한다. 세로토닌은 신체에 이완효과가 있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성교나 자위행위 후에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다." 그랬구나!

또 이 책의 소제목을 읽다보면 꽤나 재미나는 것을 발견한다. "이래도 이 책 안 읽으렵니까?"라는 꼬드김(?)이 들었다. 왼손잡이, 노인불면증, 자살, 귀지, 몸 냄새, 흰머리, 머릿니, 손톱, 목소리 성전환, 돌연사, 스트레스, 알레르기, 창자와 세균, 거세된 남자, 노화, 과민방광, 전립샘비대, 운동중독 등등이다. 한마디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찾아볼 수 있는 '가정 의학서'라 해도 좋다. 단지 의학 상식을 기술한 책이 아니고 친절한 '내과의사'를 만난다 해도 좋을 듯. 오묘한 인체를 요론 면 저론 면 살살이 설명하고 있으니, 일독을 권한다. 사실 모르는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제 몸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 많기다. 어디 한번 물어보자. 당신의 간은 어느 자리, 어디에 있소? 똥오줌이 누린 이유를 아는가? '손톱반달'은 무엇이며, 어째서? 간지럼은 왜 타는가? 기억의 정체가 뭔지 아는가? 늙으면 왜 저승버섯이 생겨나는지? 체온이 몇 도 이상이면 뇌에 이상이 올까? 자살을 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을까? 인두와 후두를 구별하는가? 출산 후 성적관계를 언제 가질 수 있을까? 무궁무진한 인체, 자기 몸에 관심을 가져볼 것이다. 그것이 건강을 얻는 길일 것이니 말이다. ❄️